드럼 아빠·베이스 엄마·기타 오빠·키보드 언니…난 보컬

행복을 노래하는 'SOS가족밴드'

나주 왕곡초등학교 1학년인 김현수(7)양은 그룹사운드 보컬로 맹활약중이다. 현수양이 활동하는 밴드는 'SOS(Song of song) 가족밴드'.

아빠 김홍석(45·전남도농업기술원)씨가 리더 겸 드럼, 엄마 김황경(45)씨가 코디네이터 겸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다. 오빠 최현철(22·군인)씨는 일렉트릭 기타를, 작은언니 김현아(13·왕곡초 6년)양은 드럼과 키보드를 연주한다.

요즘 현수네 밴드는 오는 11일 열리는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위해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본선 참가곡은 동요 '노을'과

'SOS 가족밴드'는 현수네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다. 왼쪽부터 엄마 김황경, 막내딸 현수, 둘째딸 현아, 아빠 김홍석, 오빠 최현철씨.

나주 현수네 11일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참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로 현수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다.

현수네가 밴드를 결성한 건 1년 전이다. 조카가 음악학원에 다니는 걸 본 황경씨가 제안을 해 가족들이 각각 악기 하나씩을 맡게 됐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변변한 음악학원이 없어 광주까지 차를 타고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서 얻게 된 성취감에 연습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현수네 밴드는 실력이 쌓이자 창평노인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작은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카페(cafe.daum.net/hongseg)도 개설해 지난달 열린 가족페스티벌 예선 동영상 등 연주모습도 올려두었다.

'음악'은 재혼 가정인 '현수네'를 끈끈하게 이어줬다. 황경씨는 1997년 남매를 데리고 총각이던 홍석씨와 재혼했고 이후 현수와 현아 자매를 낳았다.

"아들놈 하고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몰라주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보려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함께 연주를 하고, 또 늘 음악과 함께 하면서 이제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요즘이 너무 행복해요."

현수네 가족의 꿈은 일단 가족음악페스티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막내 현수양은 "가족들과 연주하면 너무 즐겁고 신난다"며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1등할 자신이 있다"며 웃었다.

또 다른 꿈은 집에 아담한 연습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늙어서 기력이 없을 때까지 계속 연주할 거예요. 사위와 며느리도 함께 음악을 하고, 손주 녀석들도 같이 해야죠. 시골에서 아이들 넷 키우는 게 사실 힘들죠. 하지만 늘 함께 연주를 하다보니 서로 대화도 많아지고,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요. 음악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셈이죠. 또 저희가 크리스챤이라 노래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싶어요."

황경씨는 "요즘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저희 밴드가 마음만 갖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2010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에는 형제·자매·사돈으로 구성된 '꿈꾸는 사람들', 일본주부들이 뭉친 '토토로와 친구들' 등 모두 12개 팀이 참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치과병원에 외국인진료소

3일 오픈… 미국 면허 가진 전문의 배치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상원)이 오는 3일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의가 원스톱으로 진료하는 외국인진료소를 오픈한다.

전남대치과병원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그동안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용 치과진료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그동안 치과치료에 불편을 겪어온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전문 치과 진료시스템을 갖춘 진료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대치과병원 외국인진료소는 모든 치료를 한 진료실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무통치료와 최신 치과 기술로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특히 전남대치과병원은 언어소통 등 외국인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제적 진료감각과 언어소통이 가능한 이석우 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석우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대학 및 콜롬비아 대학에서 치주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미국 뉴욕주, 위스콘신주 치과의사 면허, 그리고 미국 치주학회 인정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국 23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홍보사절단의 도움을 받아 아시아권 환자들의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대치과병원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00여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승철 전 검사장 정씨와 대질조사

'스폰서 검사' 특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1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대질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씨와 검사와의 대질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한 전 검사장은 부산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께 회식자리에서 정씨를 알게된 뒤 수차례 술접대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한 사실 등이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인정돼 지난 7월 면직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변호사와 함께 특검 사무실로 나온 한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접대의 대가성과 고소장 처리 등에 있어 직권남용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그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올해초 정씨의 팩스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과 관련해 금명간 소환이나 방문 등 대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정씨 동생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는 형이 억울한 점이 많으니 재수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접대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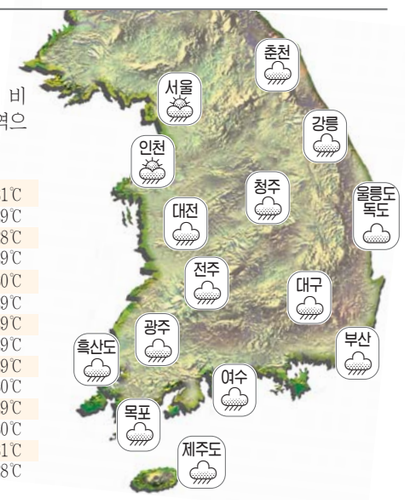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5분 / 해짐 19시 00분 — 달뜸 22시 57분 / 달짐 12시 59분

곤파스 상륙

오전에 남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5/31℃
목 포	흐리고 비	25/29℃
여 수	흐리고 비	25/28℃
완 도	흐리고 비	25/29℃
구 례	흐리고 비	23/30℃
해 남	흐리고 비	25/29℃
장 흥	흐리고 비	25/29℃
고 흥	흐리고 비	24/29℃
순 천	흐리고 비	24/29℃
영 광	흐리고 비	25/30℃
진 도	흐리고 비	25/29℃
전 주	흐리고 비	24/30℃
남 원	흐리고 비	23/31℃
흑산도	흐리고 비	23/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동~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2.0~3.0m
먼바다	동~남동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3.0~5.0m
먼바다	동~남동	4.0~6.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3.0~5.0m
먼바다	동~남동	4.0~6.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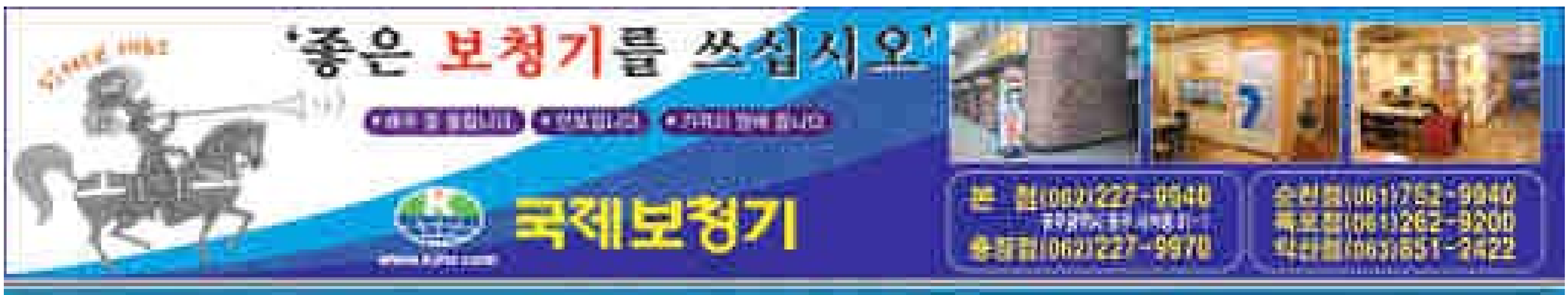
	밀물	썰물
목포	06:16 / 19:09	11:33 / --:--
여수	00:01 / 13:38	06:49 / 19:32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 씨						
최저/최고	25/29	25/32	25/32	24/31	24/30	24/31

학교폭력 자진신고 10월까지 2개월 운영

경찰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당국과 합동으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을 '2학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신고는 전국 경찰서나 학교에 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접수한다. 인터넷(www.police.go.kr, www.117.go.kr)이나 전화(☎117, 112, 1588-7179)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연합뉴스